월간

공군

제537호 03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기획**
제4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23, A to Z

10 **특집**
모두의 겨울방학: 공군인의 겨울방학 총정리

16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35A(Freedom Knight)

18 **Aero Detail**
비운의 명 항공기 Ⅲ

24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이집트 국민의 자부심, 이집트공군

표 지(앞) 임관식 날 아침 개구리 소위를 깨우는 하늘이 프렌즈 (상병 황원진)

발 행 일 자 2023년 3월 1일(통권 제537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020069)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28 **내 옆의 공군인**
영화 「빨간 마후라」 남자주인공, 신영균 원로배우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40 **슬기로운 장병생활**
영혼을 울리는 말

42 **한 달, 한 권**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아라비안나이트

44 **영화로운 나날**
「더 퍼스트 슬램덩크」 현실에서도, 영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46 **시와 비행하다**
이벤트 호라이즌

48 **트렌드가 보인다**
방송을 보는 방법의 진화: 전파에서 OTT로

50 **생각하는 그림**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2 **공군인의 편지**
훈련소 입소 1주년에 다가서며
(20전비 항공기정비대대 최종기회점검반 상병 박준하)

53 **책 읽는 공군**
정예공군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공군대학 교수부 작전학처 소령 김대호)

54 **토닥토닥**
삶의 작대기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공군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제4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23', A to Z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하고,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보며 하늘 너머의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당신이 상상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인류는 결국 하늘을 날게 됐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며,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겐 하늘과 우주를 향한 상상력을 심어주며, 어른들에겐 유년시절의 하늘·우주를 향한 동경을 떠오르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 과학축제,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가 4년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돌아왔습니다. 연간 관람객 7만여 명, 참가선수 8천여 명이 찾는 큰 대회이자,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오랜 전통의 대회 역사부터 대회 종목·예선 지역 등의 대회 정보, 참가신청 순서로 대한민국 공군의 '제4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23'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의 역사

1979년,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사진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의 역사는 6·25전쟁 후 대한민국 항공 단체들이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개최했던 모형항공기 대회들을 모태로 합니다. 공군은 1979년, 청소년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공군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3개 종목(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동력비행(유/무선조종))의 모형항공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가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입니다. 이후 대회 30주년을 맞은 2008년, 하늘로! 우주로! 비상하고자 하는 공군의 의지를 담아 대회 이름을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로 바꿨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역사는 2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 기틀을 다지며, 질적인 발전을 꾀한 제1회(1979년)부터 제29회(2007년)까지의 첫 번째 시기와 첨단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실내 무선조종 헬기·폼보드 전동비행기·실내드론 등 새로운 종목을 도입·변경한 제30회(2008년) 이후의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공군은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도 2020년(미개최)에는 UCC/사진 공모전, 퀴즈이벤트 등의 온라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제42회(2021년), 제43회(2022년) 때는 '온라인 무인항공기(드론) 경연대회'로 종목을 변경·개최해 대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대신 열린 온라인 이벤트 '사진 공모전' 우수작

2022년, '2022 사천에어쇼' 행사장에서의 무인 항공기(드론) 코딩 경연 결선 사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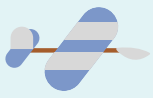
광활한 비행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군악대의 신나는 공연과 의장대의 절도있는 동작, 다양한 현장 체험 이벤트 등 공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Space Challenge 2023 기본정보

대회는 2005년생부터 2016년생까지의 어린이·청소년을 학년(나이)에 따라 초등1·2/중등/고등부, 4개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종목은 글라이더, 고무동력기, 폼보드 전동비행기, 물로켓, 드론으로 총 5개입니다.

모형항공기 3개 종목(글라이더, 고무동력기, 폼보드 전동비행기)은 모든 지역 예선에서 시행되며, 종목별 상위 20%의 인원은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2개 종목(물로켓, 드론)은 본선에서만 열리며, 각각 선착순 250명을 모집합니다. 모든 대회는 1인 1종목 개인전으로, 중복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예선〉



글라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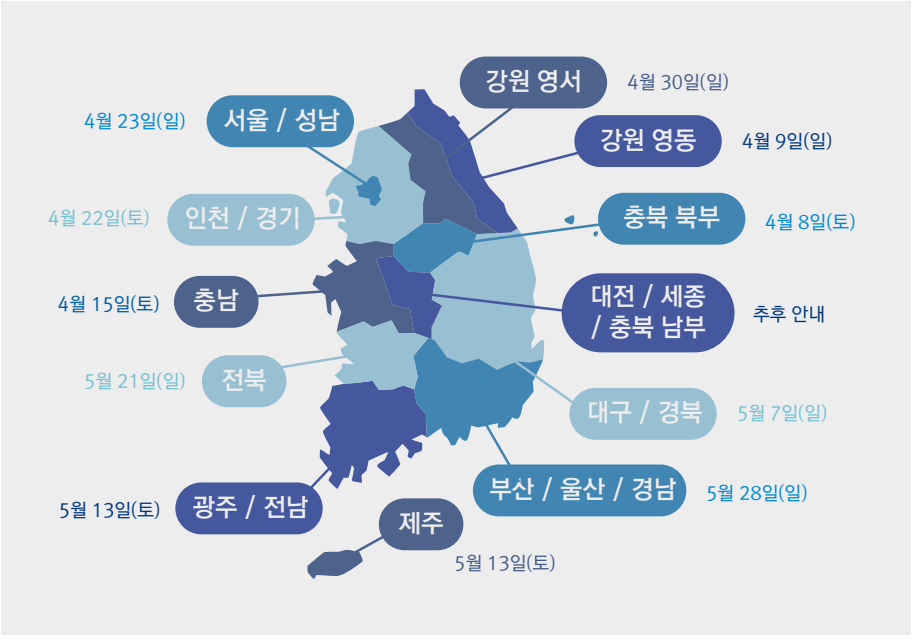
고무동력기

폼보드 전동비행기

〈본선〉

물로켓

드론 조종



'Space Challenge 2023' 예선 지역

참가자는 참가종목을 정한 뒤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spacechallenge.kr)에 공지된 대회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회는 4월부터 6월까지 차례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예선 대회가 열립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의 본선 대회는 6월 17일(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학교 소속지역이나 주소지 등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단 1개의 예선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부지역(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남부, 충남) 예선이 총 15개에서 13개의 지역으로 통폐합됐듯이, 이번 대회부터는 기존에 대구/경북 남부(대구)와 경북 북부(예천)로 나뉘어 운영되던 대구/경북 지역 예선이 대구/경북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예·본선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ace Challenge 2023 참가 신청

참가자는 종목을 결정한 다음 대회 참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1.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가입한다.
   spacechallenge.kr
2. 대회관–대회규정 게시판에서 대회규정을 꼼꼼히 읽는다.
3. 대회관–참가신청 게시판에서 대회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4. 대회관–참가확인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 정보 이상 유무와 참가증을 확인한다.

※ 대회 일정은 부대 사정, 기상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당일, 참가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참가증과 종목별 준비물을 챙겨와야 합니다. 이때, 모형항공기는 '대회 규정'을 꼼꼼히 읽으며, 미리 완성해 와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 참가증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가증을 출력물, 목걸이, 명찰 등의 형태로 준비해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Space Challenge 2023'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좌) / 모바일 참가증(우)

'공군참모총장배 Spacec Challenge'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QR코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공지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관련 문의 사항을 예·본선 담당자에게 직접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 축제인 만큼 게시물 태그, 참가 신청 인증 등의 SNS 이벤트와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핸디 고무동력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 운영계획, 규정,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challenge.kr)' 홈페이지 대회관-대회규정 게시판의 '대회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모두의 겨울방학:

공군인의 겨울방학 총정리

겨울방학은 방학 중 제일 깁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부터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공군인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항공우주 분야 시설 답사, 봉사활동, 대외활동,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부터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까지 총 4명의 겨울나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꿈꾸는 예비 공군인도 만나봤습니다.

공군사관학교 4학년 박종범 생도(제72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느 또래처럼 어릴 때 탈 것, 그중 비행기를 좋아한 박종범 생도입니다. 어릴적 집 근처에 군인아파트가 있어서 군인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며, 공군 조종사에 관한 꿈을 키웠습니다. 생도들은 약 5주의 방학 기간, 대부분 해외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떠나곤 합니다. 저 역시 이번 방학에는 미국 동부로 1월 중순에 7박 9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것을 좋아해 제가 나온 여행 사진은 없지만, 제가 다녀온 곳들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의 별관 '어드바-헤이지 센터' 전경

먼저,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 분야의 성지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박물관이며,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정확히는 본관보다 훨씬 큰, 격납고 형태의 별관 '어드바-헤이지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노획한 일본, 독일의 항공기와 냉전 시기 귀순한 일부 항공기. 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폭격기,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등과 같이 여러 기념비적인 기체들이 전시돼있었습니다. 5년 전에 관람했던 본관도 재관람하려 했으나, 리모델링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뉴욕의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 전경

이 외에도 워싱턴 DC의 '미 해군 기념관'과 뉴욕의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인트레피드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사용되다가 퇴역한 항공모함을 개조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우주선, 군용기 전략잠수함 등이 전시돼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미국의 항공우주 관련 박물관들을 관람하며, 미국이 가진 항공우주 분야의 위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종 장교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생도 생활 1년도 후회 없이 동기, 후배들과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백두산 후보생(제52기)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군복을 입고, 경남 진주의 교육사령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백두산 후보생입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훈련할 땐 훈련하는 백두산!”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일주일에 1권 이상 책 읽기’도 열심히, 배구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등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단계의 목표를 설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군 소령으로 전역하신 아버지(학군 22기, 조종)의 뒤를 이어 공군 장교로 무사히 임관하는 것, 2단계는 전역 후에는 학생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체육 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자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교육 선교를 펼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꿈을 품음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말 보충수업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간에 2년간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제한이 완화된 작년부터 다시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아동센터에서 매주 주1~2회 4시간씩 국어/수학/체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수업으로 학습에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또, 이번 겨울에는 교회를 통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부 연탄과 자원봉사자 수가 부족하다는 기사도 봤었기에,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르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2022 정기 연고전 시합 준비·정리를 지원하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한 백두산 후보생

어린 시절 가족사진의 백두산 후보생(왼쪽 첫 번째)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날의 백두산 후보생

2월 28일(화) 연세대학교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 및 입단식이 있어, 정식으로 학군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봉사활동 시간을 유지하는 건 어려워질수 있겠지만, 시간을 줄여서라도 교육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능력은 나눌 때 빛이 난다고 생각하며, 제 능력으로 타인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공군 학군단 첫 번째 기수임에 자부심을 품고, 공군 장교 선배님들에겐 자랑스러운, 동기들에겐 든든한,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늠름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손다민 후보생(제50기)

'나'와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롯이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손다민 후보생입니다. 저는 2022년을 대외활동과 졸업 준비, 자기계발, 학군단 활동으로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 방학은 졸업과 임관을 앞둔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대외활동,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7기(2022. 3.~2022. 12.)로 국방부 청사 방문, 2022 서울안보대화, 국방화보프로젝트 등 국방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취재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국방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활동입니다. 또, 공군 관련 취재기사를 작성하며, 공군에 관한 공부도 하고, 공군을 홍보한다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국방부 유튜브 프로그램 「레알!! 군대썰전: M프렌즈편」 출연과 'M프렌즈 모집 영상' 촬영입니다. M프렌즈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못했을 테니까요! 학군단 일정과 겹쳐서 해단식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송년회·신년회 등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알!! 군대썰전: M프렌즈편」 촬영장에서의 손다민 후보생(왼쪽)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손다민 후보생(왼쪽)

또, 통일부 청년기자단 유니콘 15기(2022. 5.~2023. 4. 30.)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제3땅굴', '도라산역' 등과 같은 안보현장을 실제로 방문하며,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남북관계와 북한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임관을 앞둔 지금 대학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면 열정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계발 해 대한민국 영공을 더욱 푸르게 빛낼 정예 장교가 되겠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손다민 후보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3학년 유성연 군(제53기)

저는 관제사를 꿈꾸며, 시간을 의미 있게 소비하고자 노력하는 유성연입니다. 부모님께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분에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을 갔다 왔으니까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 공항을 다니다 보니, 하늘의 교통을 통제하는 관제사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운명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알게 돼 진학했고, 현재는 항공관제 특기를 목표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격증 취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국가기술자격인 '항공무선통신사'를 11월에 취득했고, 이 자격 취득을 준비하면서 여름방학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2학기엔 ITQ(한셀, 한쇼) A등급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기가 시작되면 TOEIC, OPIC 등 영어시험을 고득점 목표로 도전할 예정입니다.

유성연 군의 방학 간 봉사활동내역과 취득한 자격증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약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에 맞춰 봉사를 신청하고 있다 보니, 운전면허시험장 행정보조, 대안학교 발표회 행사 보조, 어린이 보육 시설 환경미화,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다양한 봉사를 했습니다.

또, 이번 겨울방학엔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 해외현장학습에 성적우수자로서 선발돼 1월 중순, 4박 5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나리타 항공 과학박물관', 'JAL 스카이 뮤지엄', '일본 과학 미래관' 등을 견학했는데, 전시된 항공기에서 전에는 모르던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보여 신기했습니다. 얼른 임관해서 공군에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에는 지금처럼 잘 준비해 원하는 항공관제 특기를 꼭 받고 싶습니다.

유성연 군이 서울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는 모습

'2023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해외현장학습' 단체 사진(앞줄 맨 오른쪽)

하늘을 꿈꾸는 공군인 꿈나무를 만나다!

(사)항공우주소년단은 공군, 항공산업체, 학계가 함께 초등/중등/고등 단계별 눈높이 항공우주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관한 꿈을 키우고, 체계적인 이론 및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한국항공우주소년단원으로 활동하며, 알찬 겨울방학을 보냈다는 예비 공군인을 만나봤습니다.

항공우주소년단 차주원 군(구미중학교 2학년)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서울 ADEX 2021'에 방문해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전시된 군용기들을 보며, '공군 조종사'의 꿈을 품은 차주원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항공과 조종 관련 책을 사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게 이번 겨울방학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올해 1월, 1박 2일로 운영되는 '동계 겨울방학 에어드림 항공우주진로캠프'에 참가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제3훈련비행단, KAI(한국항공우주)를 견학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차주원 군의 책상에 놓인 항공 관련 책과 공군 기념품

'5기 청소년항공우주리더스(FALCON)'의 원주기지 견학 단체 사진

특히,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조종석에 탄 채로 학생 조종사분들과 대화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같은 꿈을 꾸시는 형, 누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를 해 주니 더욱 힘이 났고,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사)항공우주소년단의 '5기 청소년항공우주리더스(FALCON)'으로 2021년 7월부터 1년 반여 기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항공우주·항공우주산업의 역사와 미래, 모형항공기·열기구·오르니톱터의 이론과 제작, 항공우주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 국립항공박물관·공군비행단·KAI 등 관련 기관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항공우주박물관 견학을 마지막으로 수료증서를 받고 활동을 마쳤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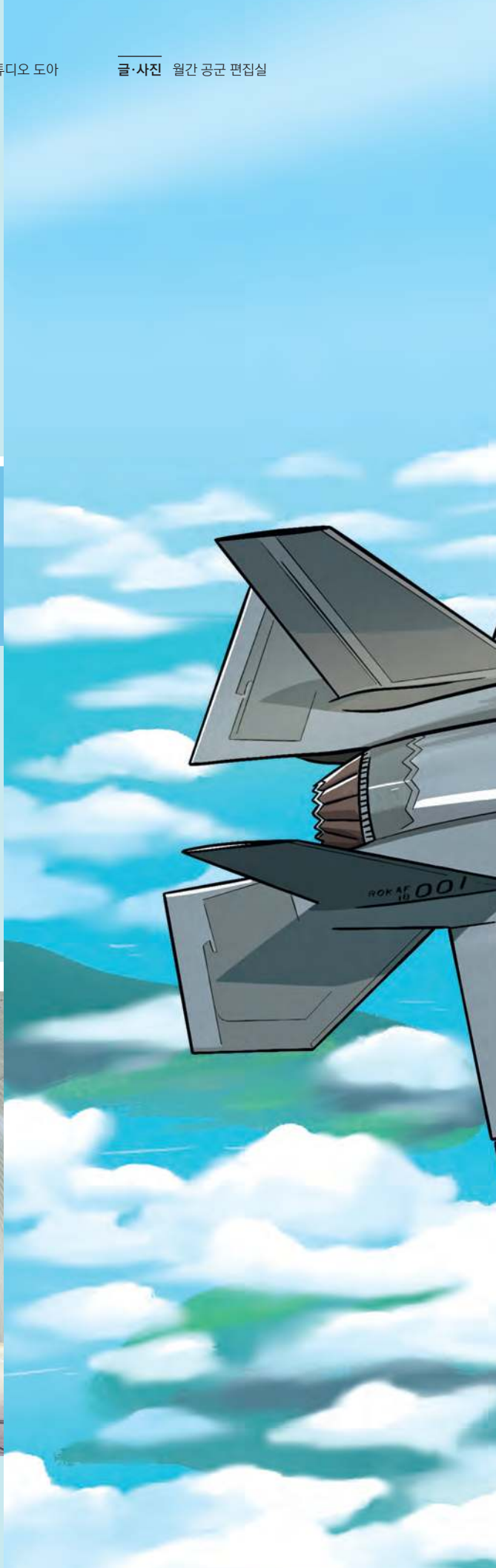
공군과 KAI,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덕분에 알찬 방학을 보낸 것 같고, 다음에도 공군과 항공기, 조종 분야에 관해 배우고, 체험할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러스트 스튜디오 도아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35A
FREEDOM KNIGHT

공중·지상·해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텔스(Stealth) 전투기로, 2018년부터 차례로 국내에 도입·전력화되고 있다. F-35의 일반적인 별칭은 라이트닝(Lightning)-II으로 쓰이지만, F-5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의 임무를 계승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라는 뜻으로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로 명명됐다.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가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모습

길이	15.7m
폭(너비)	10.7m
높이	4.6m
최대속도	마하 1.6 (약 1,958km/h)
무장	25mm GAU-12U 기관포 1문, AIM-9X, AIM-120B/C AMRAAM, AIM-132, JDAM 등

글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사진 Wikipedia

Aero Detail

비운의 명 항공기 Ⅲ

성능은 뛰어났지만 양산에 이르지 못한 사연

고성능 스텔스 공격기 A-12 어벤저II

A-12 어벤저II 스텔스 공격기 개념도

A-12 어벤저II는 미국이 1980년대 말에 개발을 추진했던 스텔스기 이름이다. 마치 UFO를 연상시키는 외형의 이 스텔스기는 당시 미 해군의 주력 공격기였던 A-6 인트루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다.

A-6는 초기형인 A-6A형이 1963년에 배치된 후 1997년까지 미 해군을 대표하는 함재 공격기였다. 약 8톤의 외부무장을 탑재하고도 1,600km의 전투행동반경을 보였던 A-6의 공격력은 A-7 콜세어II 공격기나 F/A-18 호넷 전투기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A-6의 대를 이어 미 해군은 A-6 수준의 공격 능력을 갖

추면서도 미래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성이 강화된 ATA(Advanced Tactical Aircraft) 사업을 계획했다.

ATA 사업에는 업체들이 2개의 팀을 구성해 미 해군에 설계안을 제시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現 록히드마틴)와 맥도넬 더글라스(現 보잉)로 구성된 GD팀은 삼각형 모양의 기체를 제안했고, 노스롭과 그루먼, LTV로 구성된 노스롭팀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축소한 듯한 형상의 기체를 제안했다. 결과는 GD팀의 승리였다. GD팀이 더 낮은 비용에 높은 성능을 미 해군에 제시했던 것이다.

ATA 사업으로 탄생할 항공기는 걸프전에서 활약한 F-117 스텔스기보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무장능력이 요구됐다. 미 해군은 A-6보다 2배의 신뢰도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명칭도 6의 2배를 곱하여 A-12로 명명했다. A-12는 삼각형 모양의 다면체 설계와 대형의 내부 무기고를 탑재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엔진은 쌍발로 결정됐고, A-6보다 긴 작전반경이 요구되어 삼각형의 전익기(Flying Wing) 형태로 설계가 진행됐다.

A-12는 최대이륙중량 약 31톤에 내부 연료를 10톤 이상 탑재한다. 충분한 내부연료량 설계 덕분에 GD팀은 노스롭팀 설계안의 전투행동반경 1,570km 대비 전투행동반경 약 2,030km라는 고성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노스롭팀보다 긴 항속 능력의 스텔스 공격기를 대당 3,100만$에 공급하겠다는 GD팀의 설계안은 미 해군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스텔스기 개발 경험이 없었던 GD팀은 신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개발비를 39억$로 예측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1988년 11월 이후 예상 개발비는 3개월마다 3~4억$씩 증가했다. 급기야 2년도 안 된 1990년 5월에는 예상 개발비가 54억$까지 상승했다. 계약 최고 한도 가격인 47억$는 이미 개발 1년 만에 초과해버린 상태였다.

미 해군은 A-12가 탄생하면 3년 이내에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70%를 A-12가 소모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걸프전이 발발하기 열흘 전인 1991년 1월 7일, 마침내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은 A-12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고야 만다.

초기 소요가 미 해군 620대, 미 해병대 238대로 함재기 소요만 858대, 미 공군도 400대를 구매하게 되어 총 양산대수는 1,25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실물 크기 모형도 완성되기 전에 취소된 것이다.

A-12 개발사업의 취소는 잘못된 사업관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구소련 붕괴와 전반적인 국방비 감축 분위기라는 환경적인 이유도 결정적인 취소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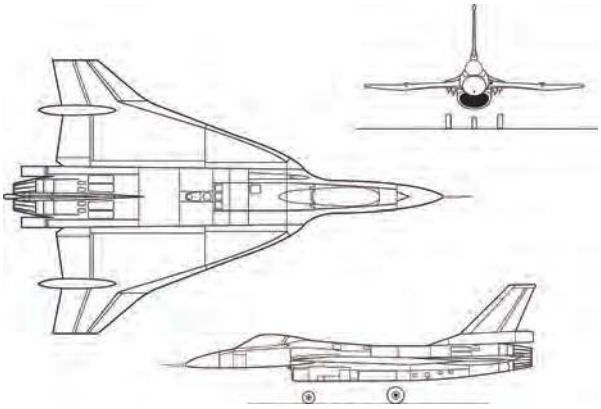
F-15와의 경쟁에서 패한 F-16XL

나사 드라이든 비행연구센터에서 비행실험에 사용된 F-16XL

F-16XL은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기본으로 성능을 최대로 끌어낸 역사적인 전투기이다. 비록 미 공군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해 역사 속에 묻혔지만 F-16XL을 통해 연구됐던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6XL은 미 공군이 F-111 단거리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에 추진한 ETF(Enhanced Tactical Fighter) 사업이 계기가 됐다. 폭격기를 폭격기로 교체하지 않고, 전투기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는 별도의 호위 전투기 없이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공중전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폭격기와 제공 전투기를 단일 기종으로 교체하겠다는 야



F-16XL 삼면도

F-16A(위)와 비행하는 F-16XL(아래)

심 찬 계획에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와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우수한 공중전 성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폭격기를 전투기로 개조하는 것보다 전투기를 폭격기로 개조하는 것이 수월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전투기 제작사가 경쟁에 참여한 것이다.

양사는 각각 F-15와 F-16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거리 폭격이 가능하도록 항속거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F-15는 대형 기체였기 때문에 내부 공간의 여유가 많아 연료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맥도넬 더글라스는 F-15 형상을 유지하면서 내부 연료탱크를 추가하고, 외부에 컨포멀 연료 탱크를 추가시킨 F-15E형을 제안했다. 반면 소형 경량전투기였던 F-16은 연료량 증가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델타익의 특성에 주목하고 F-16의 무미익 델타형을 제안했다. 기존 F-16 구성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주날개를 대형화시켜 많은 연료를 내부에 탑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동체를 연장해 연료탑재량을 추가로 증가시켰다. 기체 내부는 거의 유사하지만 외형은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F-16, 즉 F-16XL형이 탄생한 것이다.

F-16XL에 적용된 주익은 후퇴각이 70도인 내익과 후퇴각 50도인 외익이 결합된 형태다. 비교적 복잡한 형상이지만 단순 델타익에 비해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음속에서 항력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새로운 주익으로 F-16XL의 날개 면적은 기존형보다 2배 이상 넓어졌고, 내부 연료탑재량은 약 73%가 증가하였다. 중량이 소폭 증가한 데 비해 항력은 감소하고, 연료탑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항공기 성능은 크게 향상됐다.

예컨대 기존 F-16의 최대속도는 무장을 탑재하면 마하 0.9에 불과했지만 F-16XL은 무장을 탑재하고도 마하 1.6의 비행이 가능했다. 즉, 초음속 공대지 무장투하가 가능했다. 무장탑재 스테이션도 총 17개소로 늘어나 500 파운드 폭탄 22발을 탑재할 수 있었다. 기존 F-16과 비교하면 F-16XL은 같은 무장탑재에서 항속 성능이 2.24배, 2배의 무장을 탑재해도 1.45배의 항속 성능이 향상된다고 제작사는 밝혔다.

F-16XL은 모듈화된 F-16의 구성품과 동체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F-16과의 공통성이 72%에 달했다. 따라서 기존 F-16 생산설비의 활용이 가능하여 개발비는 물론 획득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F-15E에 비해 낮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무장투하 후 고속으로 귀환이 가능했던 F-16XL은 여러모로 우수성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높은 공격능력을 원했던 미 공군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F-16XL은 F-15E와의 경쟁에서 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야 말았다.

A-10과의 경쟁에서 패한 YA-9 공격기

노스롭 YA-9 공격기 시제기

근접항공지원에 특화된 공격기라면 미 공군의 A-10, 러시아의 Su-25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A-10 공격기는 1991년 걸프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임으로써 명성을 굳혔다. YA-9 공격기는 이 A-10 공격기와 경쟁에서 패해 역사 속에 묻힌 기종이다.

YA-9와 A-10 공격기는 미 공군이 1967년부터 시작한 A-X(Attack Experimental)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1960년대 나토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량의 전차부대를 보유한 바르샤바조약기구 지상군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였다. 당시 서유럽의 나토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할 충분한 양의 전차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양한 종류의 대전차 전력을 고심하던 나토군은 대전차 공격기와 공격 헬기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미 공군은 전차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저가의 대전차 공격기를 개발해 대량의 전차를 제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A-X 사업이었다.

A-X 사업으로 탄생하게 될 공격기는 전방의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지상군의 화력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장 상공에서의 장시간 체공 능력이 요구됐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F-4 팬텀 전투기에서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까지 다양한 기종을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투입했다. 그 결과 프로펠러 공격기였던 A-1이 오히려 제트 전투기들보다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더 효과적임이 판명됐다. 비록 무장탑재량도 팬텀에 비해 적고, 속도도 느렸지만, 저공에서 장시간 체공할 수 있었던 A-1 공격기를 지상군은 더 선호했다.

총 6개 항공기 제작사가 A-X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시제기 제작업체로 선정된 것은 노스롭과 페어차일드였다. 시제 항공기 명칭은 각각 YA-9와 A-10으로 명명됐고, 1972년부터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루어졌다.

베트남전 경험을 통해 저고도에서 작전하는 항공기는 다양한 구경의 대공화기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새로 개발되는 공격기는 대공화기에 대한 생존성이 특히 강조됐다. 이러한 대책으로 양 기종은 조종석에 23mm 탄의 직격에도 견딜 수 있는 욕조형 방탄판을 탑재해 조종사의 생존확률을 높혔다.

A-10과 YA-9를 비교하면 형상 측면에서 엔진 위치와 꼬

후면에서 본 YA-9 공격기

A-10과의 경쟁에서 패한 YA-9 공격기 시제기

리날개가 가장 차이가 난다. A-10은 엔진을 후부 동체 위에 각각 떨어뜨려서 얹은 형태로 설계했다. 특이하게도 동체 위에 엔진을 위치시킨 이유는 앞과 뒤의 날개가 엔진을 가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엔진 뒤에 있는 수직꼬리날개는 엔진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추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유사시 한쪽 날개가 피탄되더라도 조종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꼬리날개는 두 개로 설계했다.

독특한 외형의 A-10과 달리 YA-9는 일반적인 제트기 형상으로 설계됐다. 엔진은 주날개 안쪽에 위치시켰고, 수직꼬리날개도 한 개였다. YA-9는 한국 공군도 장기간 운용했던 세스나 사의 A-37B 공격기를 마치 그대로 확대해 개발한 듯한 외형을 보였다. YA-9는 A-10보다 최대속도를 높여 생존성 향상을 도모했지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두 기종의 시험평가 결과, 미 공군은 1973년 1월 A-10을 차기 공격기로 선정했다. 생존성과 양산 비용 측면에서 A-10이 YA-9보다 우수했다. YA-9 공격기는 평범한 외형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YA-9와 유사하게 설계된 러시아 Su-25 공격기는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대표적인 주요 공격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궁극의 프로펠러 전투기 Ta 152H

궁극의 프로펠러 전투기 Ta 152H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말, 독일 하늘에는 독일 공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 소속 무스탕 전투기 4대는 임무 수행 중 정체불명의 기체 한 대를 발견했다. 독일의 기반시설과 공군을 무력화시킨 이후 격추할 대상이 사라진 무스탕에게 나타난 독일 항공기는 날아다니는 표적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무스탕은 곧바로 멀린 엔진을 최고출력으로 높이며,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기는 단순히 기수를 기지로 향한 채 오히려 무스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저 멀어져가는 적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연합군의 가장 고성능 전투기였던 P-51D의 추

격을 여유 있게 뿌리칠 만큼 빠른 속도를 보였던 독일군의 이 정체불명의 전투기는 바로 Ta152H였다.

Ta152H 개발은 1942년 5월에 독일이 요구한 고고도 전투기 개발계획으로 시작됐다. 이 고고도 전투기 개발계획에는 메서슈미트와 포케볼프가 각각 Me155B, Ta152H 기종을 참여시켰다. Me155B는 초고고도 전투기라는 발전된 개념이었지만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돼 탈락했고, Ta152H는 기존의 성공작 Fw190D를 토대로 안정적인 개발이 예상돼 최종 채택됐다.

Ta152H는 고고도로 비행하는 미국의 4발 중폭격기와 호위기들을 여유 있게 요격할 수 있도록 고도 12,500m(40,000ft)에서도 고속 운용이 가능한 성능을 요구받았다. 즉, 당시 어떠한 프로펠러 전투기보다도 높게, 빠르게 비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Fw190의 주날개와 꼬리날개, 고양력장치를 대형화시키고, 기수 연장과 더불어 동체를 여압화시키는 구조적 변경을 했다. 엔진은 신뢰성이 입증된 유모 213엔진에 수퍼차저와 MW-50 파워 부스터를 추가했다.

개량을 마친 Ta152H는 고도 9,000m에서 750km/h의 속력을 낼 수 있었으며, 파워 부스터를 사용하면 고도 12,500m에서도 765km/h의 속력이라는 경이적인 성능을 보였다. 이 성능은 프로펠러기로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기 때문에 독일공군에서도 이 기체의 채용을 결정, 1944년 10월부터 선행양산형인 Ta 152H-0 20대와 양산형 H-1 조달계약이 체결되었다. 양산형의 날개폭은 14.44m로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었고, 무장은 프로펠러 축에 Mk108 30mm 기관포 1문과 주날개와 동체에 MG151 20mm 4문(H형은 2문)을 장착하고 있었다.

당시 연합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P-51D의 최대속도는 703km/h, 스핏파이어 XIV의 최대속도는 721km/h 정도였다. 이에 반해 765km/h의 속도에 운용 고도 12,500m 이상이라는 Ta152H의 성능은 어떠한 연합군의 전투기도 쉽게 요격할 수 없는 성능이었다. 게다가 12.7mm나 20mm 기관포를 주로 탑재하던 연합군 전투기보다 대구경 30mm 기관포와 20mm를 혼재한 Ta152H는 4발 중폭격기라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다.

P-51D와 교전하는 Ta152H

제트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대전말에도 Ta152H의 기동성, 속도, 화력은 연합군의 폭격기와 호위기를 요격하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의 산업 능력은 Ta152H를 대량생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주력 생산형인 Ta 152C도 5대의 시제기가 1945년 2월에 제작되었지만, 밀려드는 소련군에 생산공장을 차례로 점령당하면서 결국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Ta152H는 2차대전 기간 중 어떠한 기종보다 빠르고, 고고도 성능이 뛰어난 기종이었지만 부족한 자재와 인력난으로 인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전투기가 되었다.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글·사진 신종태 교수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이집트 국민의 자부심, 이집트공군

이집트 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은 시나이반도를 통해 서아시아와 이어져 있고, 리비아·수단·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해있다. 국토면적은 100만 1,450km^{2}로 한반도의 4.5배이며, 인구 1억에 개인 연 소득은 3,600달러 수준이다. 이집트군은 정규군 438,500명(육군 310,000, 해군 18,500, 공군 30,000, 방공군 80,000), 준군사부대 397,000명, 예비군 480,000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망대 식당에서의 대한민국 애국가

카이로 시내 중심부 구릉에는 1,000여 년 전에 축성된 높이는 얼추 20~30m, 두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성채 "시타델(Citadel)"이 있다. 시타델에는 국립군사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 현장학습 중인 학생들이 필자를 보자 주변으로 몰려든다. "Korean(한국인)!"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함성이 터졌다. 순식간에 아이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념사진 모델이 됐다. 6·25전쟁 후 아이들이 미군만 보면 "Hello!"를 외치며, 졸졸 따라다녔던 과거의 한국과 비슷했다. 성곽 옆 텅 빈 전망대 식당에 들어서니 식당 주인이 메뉴 대신 국적을 먼저 묻는다. 한국인임을 밝히자 갑자기 '애국가'가 식당 내외부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간단한 국민의례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다. 주인은 "전망대에 한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곡을 틀어주면 놀란 표정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올렸다가 식당으로 들어오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국가 음반도 가지고 있다 했다. 고객유치를 위한 주인의 집념을 보니, 그 식당은 분명 대박을 터트릴 것 같다.

이집트 카이로 공군박물관의 정문

90년 창설 역사의 이집트공군

이집트 카이로 공군박물관을 둘러보면, 이집트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먼저 '이집트판 빨간 마후라' 군가와 함께 공군 소개 영상이 나온다. 1973년 중동전쟁 당시의 이집트 전투기 활약상은 관람객 가슴을 뜨겁게 달궈놓는다. 정교하게 편집된 홍보영상은 이집트인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관람하는 학생들이 '멋있는 조종사'의 꿈을 갖도록 만들기에도 충분하다.

1932년 최초 5대의 영국제 항공기 도입으로 시작된 이집트공군 역사는 90년을 넘었다. 전시실에는 시대별 공군의 발전 역사와 신예기 도입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 내 전사자추모관 벽면에는 숱한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종사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야외 원형전시장에는 창군 이래 보유했던 영국의 고정익 연습기,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소련 미그 19·21·23

1932년 이집트공군이 최초로 도입한 영국제 항공기

이집트 카이로 공군박물관 내의 전몰조종사 추모비

제4차 중동전쟁 당시의 항공기 출격 전 정비 현장을 재현한 전시관

이집트 카이로 공군박물관 야외 원형전시장에 전시된 소련제 TU-16 폭격기

형 전투기, MI 계열 헬기, 미국 F-16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집트 외교정책에 따라 우방국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무기체계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집트는 과거 공산권 국가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소련의 전폭적인 군사지원 아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치렀다.

이집트 정부의 군사 장비도 서서히 서방세계의 무기체계로 전환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이집트군에게 1,200톤급 초계함을 무상 지원하고, 작년 2월엔 2조 원 규모의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FA-50 수출과 현지 공동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작년 8월엔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외국군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비행하며,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안내 병사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

이집트 군사박물관의 안내 병사들은 전부 해외 유학생 출신이다. 유창한 영어에다 전쟁사 지식도 풍부하다. 안내병 아메드(Amed)는 영국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 참가해 이집트 카이로 인근 피라미드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전공했다. 전역 후,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징집제를 운영하는 이집트의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2~3년이지만, 대학졸업자는 1년만 복무한다. 국가인재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이라고 한다. 이집트공군은 수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공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공중전이 벌어지면 이집트군 항공기는 추풍낙엽으로 맥없이 떨어졌다. 소련이 폭격기까지 제공해 주었지만, 확실한 전과를 거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아메드의 이집트공군 자랑은 하늘을 찌른다. 중동전쟁 실상보다 조국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모양이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이집트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듯했다.

글쓴이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내 옆의 공군인

제46화

영화 「빨간 마후라」
남자주인공
신영균 원로배우

안녕하십니까? 잠시 치과의사를 하기도 했지만, 일생을 영화배우로 살아온 원로배우 신영균입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문화 분야에서 영화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또, 계속 영화인 단체와 예술인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모두 배우라는 직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요즘 배우 신영균은 몰라도, '빨간 마후라' 노래는 아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 주제곡이라는 것도 잘 모른다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 '빨간 마후라' 관련 일화와 영화로 맺어진 공군과의 인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빨간 마후라」 포스터

한류의 태동, 영화 '빨간 마후라'

노래와 같은 이름의 영화 '빨간 마후라'는 6.25 전쟁 당시 F-51 머스탱 전폭기로 활약한 평양 인근에서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각색한 영화로,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시 최신예 전투기 F-86 전투기가 22대나 동원됐고, 당대 톱스타들이 출연했습니다. 강릉 비행장을 배경으로 공군 조종사들의 군인정신, 전우애,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같은 이름의 노래와 함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빨간 마후라는 공군의 상징이 됐고, 같은 이름의 노래는 공군 대표곡이 됐습니다.

영화가 당시 얼마나 흥행했냐면, 1964년 명보극장에 처음 개봉했을 때 단관 상영관임에도 서울에서만 관객 2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극장 앞부터 을지로까지 줄이 이어졌고, 그때 국내에 암표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에 처음 수출한 국내영화이기도 해 한류의 태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랍니다. 같은 해 6월, 중화민국(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회 아시아영화제(現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감독상, 편집상을 받아 3관왕을 차지해 우리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영화는 제4회 대종상, 제2회 청룡상 등에서도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공군 군가 「빨간 마후라」 듣기 QR코드

월간 『공군』 담당자와 인터뷰 중인 신영균 원로배우

제11회 아시아영화제에서 신영균 원로배우가 받은 남우주연상 트로피(오른쪽)

군인 중의 군인, 나관중 소령

저는 영화 '빨간 마후라'에서 남자주인공이자 교관 조종사인 나관중 소령 역을 맡았습니다. 나관중 소령은 故 유치곤 장군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나 소령은 의리와 패기가 넘치고, 부하에게 자상한 사나이 중의 사나이입니다. 영화에서 나 소령은 출격을 앞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준비는 됐나. 다 같이 '빨간 마후라'를 부르자. 내가 죽는 건 몰라도 너희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휩쓴 잿더미 위에서 이 나관중이는 거름이 되면 그만이다." 나 소령은 사랑도 뒤로한 채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돋보이는 군인 중의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군 군의관 출신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나관중 소령을 떠올리며 저를 공군 출신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빨간 마후라」를 찍을 줄 알았더라면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을 겁니다.(웃음)

영화「빨간 마후라」 촬영 일화

70여 년 전 영화「빨간 마후라」를 촬영하던 당시에는 특수촬영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화 중 비행하다 나 소령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총알이 조종석 유리창을 뚫는 효과가 필요했습니다. 영화「빨간 마후라」의 감독인 신상옥 감독이 사격수를 내 10m 뒤에 두고 실탄을 쏘게 했습니다. 신 감독은 내게 일등 사격수를 데려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기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배우로서 연기 중에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연기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 할 촬영방법이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위험하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영화「빨간 마후라」에서 나관중 소령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

2013년 제10전투비행단에서 영화「빨간 마후라」포스터를 재연하며 F-5 전투기 조종석에서 자세를 취하는 신영균 원로배우

공군과의 인연

영화「빨간 마후라」개봉 49년 만인 2013년, 조종사의 날을 맞아 여주인공이었던 故 최은희 여사와 함께 영화의 배경인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조종복을 입고 F-5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영화 포스터 장면을 재연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내 이름을 말하려다 그만 "49년 만에 돌아온 나관중 소령이다!"라고 외쳐버렸죠.(웃음)

촬영 후 조종사 비상대기실, 무장전시관을 둘러보니, 영화를 찍었던 때보다 훨씬 발전한 공군의 모습이 매우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어 현역 조종사들과 군악대 연주에 맞춰 '빨간 마후라'를 함께 불렀는데, 눈시울을 붉힐 뻔했습니다. 이날 비행단 건물에 들어설 때 보인 영화 포스터, F-86 세이버 앞에서 현역 조종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던 기억 등이 아주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군과 함께 영원할 나관중 소령

공군 창군 70주년인 2019년에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신영균 특별상'[1]을 시상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원인철 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때 영화 '빨간 마후라'를 촬영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서는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듯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에는 시상식을 하지 않았으나, 다행스럽게 2022년에는 직접 시상했습니다. 저는 영화 「빨간 마후라」를 촬영했음이 정말 보람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있는 한 영화 「빨간 마후라」의 나관중 소령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2022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신영균 특별상'을 시상하는 신영균 배우(좌)와 공군에게 받은 감사패와 기념품(우)

건강관리 비결과 기부 철학

젊은 시절, 한창 촬영하던 때 밤샘 촬영은 다반사였습니다. 그 당시 피곤하니 초콜릿, 사탕 등을 많이 먹었죠. 40대 중반쯤 당뇨가 와서 단 음식은 주의하며 식생활에 신경 쓰고, 매일 오후 헬스장에서 한 시간 이상 가벼운 운동과 러닝머신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끼고 검소하지 않으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은 좋은 데 쓰면 행복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기부한 금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2019년에는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50여 년 된 내 성경책 한 권입니다. 가족들에겐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영화 '빨간 마후라'의 배경인 강릉기지 소속 전투 조종사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에게 주는 상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원사(진) 권형(공작사 공보정훈실)

생존시간 단 15분, 얼음물에 빠진 조종사를 구하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2월 3일(금),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저수지에서 겨울철 얼어붙은 강·호수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 혹한기 수중 조난 조종사 구조작전 훈련을 시행했다.

SUPER SOFT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병장 변유섭(5비 공보정훈실)

어떤 상황에서든 아군에게 물자를 보급하라!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2월 8일(수), 경남 의령군 당말리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전시 임무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보급물자, 식량과 탄약, 의약품, 무기 등 대량화물 투하 훈련을 시행했다.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공군본부 비서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정상화 참모총장은 2월 7일(화), 중부권 미사일우주감시대와 미사일방어부대를 연이어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요원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미사일우주감시대와 미사일방어부대는 적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추적·대응하는 군의 핵심전력”이라며,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비한 임무 절차를 숙지하고, 전술 조치능력을 숙달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결전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전체회의

정상화 참모총장은 1월 31일(화), 공군호텔에서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윤은기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올 한 해 공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모총장은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을 만들기 위해 자문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항공무기정비 감독자 간담회

정상화 참모총장은 2월 17일(금),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항공무기정비 감독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격려 오찬을 실시했다. 참모총장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완벽한 작전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항공무기정비 감독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비업무의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각 부대 제공

공군사관학교

공사 군악대, 지역 보육원 교육 봉사활동

공군사관학교 군악대는 2월 9일(목), 2월 10일(금) 이틀간 충북혜능보육원에 방문해 보육원생들로 구성된 '혜능윈드오케스트라'에 악기 연주지도 교육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음악캠프 형식으로 진행해 온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됐다.

교육사령부

공군 병 844기 수료식

교육사령부는 2월 10일(금), 기본군사훈련단 대연병장에서 공군 병 84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5주의 교육훈련을 마친 2,202명의 정예공군 병사가 가족·친지들의 축하 속에 탄생했다. 이들은 교육사 특기학교에 입과해 분야별 교육을 수료하고, 공군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훈련비행단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제3훈련비행단은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2월 8일(수), 학생조종사 대표 30여 명이 지역 노인요양시설 '삼소원'에 방문해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 또, 2월 10일(금)에는 항공정비사로 구성된 봉사활동 팀이 아동보육시설 '신애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 활동을 했다.

제8전투비행단

건물화재 진압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2월 7일(화), 기지방호전대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을 설정해 소방요원 임무 수행 숙달과 화재진압능력 향상을 위한 건물화재진압훈련을 시행했다.

제16전투비행단

부대 인근 지역 대민유대 활동

제16전투비행단은 2월 7일(화), 부대 인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의료지원과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무릎담요·손 소독제 등 위문품 전달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38전투비행전대

'23-1차 전투태세 훈련(ORE)

제38전투비행전대는 2월 6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5일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3-1차 전투태세훈련(ORE: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시행했다.

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슬기로운 장병생활

영혼을 울리는 말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는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집안에 들어와 부모를 마구 때리던 채권추심업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제 막 사춘기를 벗어날 무렵이었다. 법원은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살인자로 낙인찍혔다. 빚도 대물림됐다. 그녀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말을 못 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다. 빚을 갚느라 파견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밤엔 좁은 방으로 돌아와 커피믹스로 주린 배를 달래며 쪽잠을 자는 나날을 보낸다.

대기업에서 구조설계사로 근무하는 40대 부장이 있다. 그는 형제간에 우애가 남다르고 변호사 아내를 두고 있다. 아들은 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유복한 가정을 둔 중산층 남성. 그러나 마음 한쪽은 항상 허전하다.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오직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으나 허깨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배신하고 그가 가장 싫어하는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삶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며 사는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다. 회사 권력을 잡으려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면서다. 여성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사장의 사주를 받아 부장의 비위를 잡아내려고 휴대 전화를 도청한다. 그러다가 부장을 연민하게 된다. 삶이 자꾸 엇나가는 자신과 닮아서다. 부장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된 파견직 여성을 유심히 보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동질감을 느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친구가 된 두 사람은 부당한 폭력과 편견, 비방에 당당하게 맞서며 서로를 구원한다.

2018년 방영돼 화제가 됐던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최고의 '인생 드라마'로 꼽는 작품이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운명에 맞서 고단한 삶을 살면

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명대사와 명장면도 많다. "착하구나." 박동훈 부장(이선균)이 파견직 여직원 이지안(이지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던 대사다. 할머니를 극진히 돌보는 착한 지안이 당연히 들었어야 할 말인데도 그때까지 아무도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동훈의 맑은 마음에 찡한 감동이 몰려온다.

지안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동훈이 채권자를 만나는 장면도 감동적이다. 지안이 죽인 사람이 바로 채권자의 아버지였다. 채권자가 지안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폭로하자, 동훈은 놀라며 잠시 멈칫한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소리친다. "내 식구를 괴롭히면 나 같아도 죽여." 도청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있던 지안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오열한다.

지안과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나누는 대화도 심금을 울린다. 할머니에게 친절했던 동훈의 소식을 묻자 지안은 수화로 대답한다. "잘 계셔. 할머니 잘 계시냐고도 물어보셨어. 나 밥도 잘 사주고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데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지안이 말한다.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

"행복하자."(동훈이 평범하게 사는 것에 관해 얘기하며 지안에게 한 말) "뭐 사가?"(동훈이 퇴근하며 아내에게 전화로 습관처럼 하는 말인데, 지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들린다.)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동훈이 지안에게 한 말) "네 할머니 장례식에 갈 거고, 너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와."(동훈이 지안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의미로 외친 절규) 등도 기억에 오래 남는 대사들이다.

영혼을 울리는 말과 행동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공감(共感)과 공명(共鳴), 공조(共助)가 그것이다. 공감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내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공감이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남을 가엽게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타인의 영혼에 이를 수 없다. 공명이 필요하다. 물리학에서 공명은 두 입자가 충돌하며 생기는 새로운 입자 또는 현상을 말한다. 공명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관계가 맺어진다. 이때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명은 공조의 시발점이다. 공감하고 공명하면 서로 돕게 된다. 동훈과 지안이 서로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공감과 공명, 공조의 과정을 밟았다.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은 3공(共)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다. 나를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가 전하는 영혼의 울림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티저 포스터

글 편성준 작가

한 달, 한 권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아라비안나이트

편성준 작가

20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다. 퇴직 후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여보, 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등을 썼다. 작은 한옥을 고쳐 '성북동소행성'이라 이름 붙이고 '독하다토요일', '소금책' 등 돈이 되지 않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유머와 재치 있는 글을 지향하며 출판기획자인 아내, 말 많은 고양이 순자와 산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편의점을 몇 번이나 가시나요? 아, 공군 장병들은 편의점 안 가고 부대 안에 있는 BX(Base Exchange)로 간다고요? 그래도 현대인이고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편의점에 가 본 경험이 있겠죠. 제가 왜 편의점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권해드릴 책이 바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몇 년에 한 번씩 백만 부가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탄생했지만 이젠 옛말이 되었죠. 그때 백만 부가 지금으로 치면 십만 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판매량이 십 분의 일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열린 뒤부터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밀리언셀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소설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새 책 원고를 쓰느라 청주에 내려가 있었는데, 바쁜 마음에 이 책을 챙겨 읽을 생각은 못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게 책을 쓰라고 권유한 출판사 사장님이 이 책 좋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자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하는 궁금증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전자책 앱으로 들어가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을 구매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읽다가 자고, 아침 7시 반에 다시 일어나 8시 반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가독성과 흡입력이 뛰어납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노파의 파우치를 찾아 준 걸 계기로 노숙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 변신한 주인공 '독고 씨'가 자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감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우화 같은 이야기라 얼른 동의하기 어려운 설정인데도 이야기

속으로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쉬운 문장들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하는 작가의 능력과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자세 등등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 출신의 편의점 사장 염 여사와 노숙자 독고 씨의 사연을 중심으로 챕터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도 살짝 바뀌는데 문체는 3인칭 그대로(마지막 챕터만 1인칭)라서 연작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 여사의 말썽쟁이 아들 민식이 편의점으로 찾아가는 플롯과 배우 출신의 희곡작가 인경을 등장시킨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경이 쓰는 편의점 이야기는 기본적 얼개만 살짝 나오는데도, 읽는 이로 하여금 '액자 구성'의 매력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쓰게 된 마스크 덕분에 독고 씨가 자신의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장면이나, 오 여사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독고 씨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 등의 아이디어는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박찬호 도시락과 산해진미 도시락을 비교하는 멘트나 '참참참 세트(참깨라면+참치김밥+참이슬)' 같은 걸 읽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 다 작가가 편의점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으면 등장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소설가에게 다가와 "야, 요즘 편의점엔 참참참 세트라는 게 있으니 네 소설에 한 번 써봐."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소설은 '편의점은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차가운 통찰 밑에 따뜻한 마음만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착한 마음이 구들장처럼 놓여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는 일본 작가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도 참 좋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않고 '프리터족'으로 지내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다룬 소설인데 작가는 이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은 후에도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러나 현대인의 고독을 노래한 이 소설보다는 우리나라의 편의점 소설이 더 좋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읽으면 그 사회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는 독자평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힐링'이나 '연대', '희망'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착한 소설입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교보문고의 한 MD(Merchandiser, 상품기획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물어진 안전한 공간에 대한 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은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불편한 편의점'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칼럼을 쓰기 위해 어제 2권을 사서 읽고 있는데 이번엔 임영숙 사장님의 오랜 후배 오 여사가 점장이고 독고 씨 대신 홍금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활약합니다. 역시 재미있습니다. 아직 안 읽으셨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불편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2』
김호연 지음 | 나무옆의자 펴냄

글 김인혁 에디터

영화로운 나날

「더 퍼스트 슬램덩크」

현실에서도, 영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김인혁 에디터

콘텐츠 에디터. 구독 중인 OTT 서비스만 5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보다는 글로 쓰는 재주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 주말에는 『주간영화』와 『오늘은 쉽니다.』라는 뉴스레터를 마감하며 보내는 편이다.

26년.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전설적인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영화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나는 비록 「슬램덩크」의 인기를 함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파급력을 체험한 세대다. 넷플릭스,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OTT 플랫폼이 없던 그 시절. 「슬램덩크」의 빛바랜 빨간 표지는 만화방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 학교 도서관에서도, 말 그대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만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때의 추억인 「슬램덩크」의 첫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

무려 26년 만에 다시 코트를 밟게 된 이 이야기는 원작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대신, 과거의 영광을 재구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여전히 두터운 원작의 팬층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빨간 머리 강백호가 아닌 '송태섭'이라는 점은 의외다. 우락부락한 신체조건의 채치수, 불꽃남자 정대만, 슈퍼신인 서태웅, 그리고 명실상부한 주인공 강백호까지. 이들에 비하면 송태섭은 어딘가 애매하다.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선정한 이유를 "캐릭터의 플레이나 내적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즉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될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된 경우다.

일본 고교 농구 전통의 강호인 산왕공고와 맞붙는 경기에서 송태섭은 두 가지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선수로서의 가치와 아들로서의 가치다. 선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팀의 사령탑인 포인트 가드로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 또, 아들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형의 죽음에 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형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어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영화는 송태섭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로써

1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을 농구 경기로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고, 이미 결과를 아는 경기를 꼼짝없이 지켜봐야 하는 관객들에 대한 배려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원작을 보지 않은 관객에게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기존의 서사를 설명하는 대신, 주인공 송태섭의 시선을 따라가며 등장인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로도 쓰인다.

산왕공고와 맞붙는 40분의 경기 시간 동안, 관객은 플래시백(flashback)[1] 기법을 통해 송태섭의 과거를 쫓아간다. 그 과거는 함께 경기를 뛰는 북산고 멤버들의 과거이기도 하다. 사랑, 열정, 열등감 등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만나는 하나의 교차점은 바로 '농구'다. 농구는 이들에게 삶, 그 자체이자,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기에 몰입하려면 나오는 플래식백 때문에 영화의 리듬이 깨진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빈번한 플래시백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의 과거는 단순히 빈 서사를 채우는 역할이 아니라,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 준다. 송태섭에게 있어 삶이 '농구'인 것처럼,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삶, '인생'이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북산고 농구팀의 이야기로, 관객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관객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게 만든다. 강백호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정대만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며, 송태섭처럼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한 일들을 말이다. 특히 「슬램덩크」와 함께 자란 3040 세대에게는 더 큰 울림을 준다. 관객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그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위로를 건넨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에서도 많은 군 장병들의 공감을 자극할 수 있는 서사이기도 하다.

영화 흥행의 이유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는 실제 선수들의 모션 캡처와 3D CG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장의 모습을 완성해낸다. 단순히 '추억 보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객층을 사로잡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무엇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잘 만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콘텐츠는 시공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대중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냈다. 연재가 종료된 지 20년도 더 지난 농구 만화가 여전히,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 우정, 노력, 승리. 복잡한 세상일수록 오히려 이런 단순한 것들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1)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으로 보여 주는 기법. 긴장의 고조, 감정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며, 과거 회상 장면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글 강혜빈 작가

시와 비행하다

이벤트 호라이즌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찍습니다. 2016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어느 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다니던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잃어버렸다는 감각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에 생겨난다.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사전적 의미로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다', '의식이나 감정 따위가 아주 사라지다' 등 다양하다. 즉, A에서 A′로 변화한다는 속성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건은 어딘가에 분명 있고, 이미 세계에 주어져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없을 뿐. 그것이 물건이든, 장소든, 마음이든. 우리는 소유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트루퍼'라는 가상의 모자를 상정한다. 시에서는 트루퍼를 찾으러 다니는 정황이 포착된다. 트루퍼는 이를테면 빈칸 같은 개념으로, 그 속에 무수한 물건, 현상, 사람 등을 넣어볼 수 있겠다. 시의 제목 「이벤트 호라이즌」을 번역하면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다. 물리학 용어로, 최근 가수 윤하의 곡으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사건의 지평선이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을 뜻한다. 보통 블랙홀의 특성으로 언급되는데,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는 중력에 의해 시간이 느려진다. 깊고 어두운 모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보자.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리고 이미 잃어버렸음에도 까맣게 잊어버렸을,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곳에 놓여있을 모자.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스마트한 섬뜩함과 연결하면 시는, 그리고 시를 읽는 우리는 미지의 공간으로 갈 수 있다.

트루퍼 안에는 약 꾸러미가 있다 한 알 만으로 잠드는 약 오후를 잊어버리는 약 기분이 사라지는 약…… 옷장을 열고 또 열고 결이 일어난 장작처럼 머리카락을 세우고 트루퍼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려 했지 검은 모자 그러니까 검기도 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검으면서 부드럽고 흐르는 곡선을 가진

바깥에서는 모자 안을 관측할 수 없다 모자는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사건을 기록한다 넓은 귀를 가져서 모르고 싶은 이야기까지 전부 듣는 트루퍼 조금의 빛도 새어나가지 못하는 가상의 모자 마술사의 앵무새 모조장미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손에서 태어나는 트릭들 트루퍼는 가장 영원 겨울에 출발한 빛이 미래의 여름에 도착할 때까지 트루퍼는 가장 어둠 달리는 말의 형상에 가까운

그러나 모자는 말이 아니다 모자는 과묵하고 모자는 이미 완벽하지 누군가 올라타지 않아도 달릴 수 있고 근사한 페이크 퍼와 에나멜처럼 반짝이는 내부 턱을 둘러메는 리본 모자는 너무 다정하고 모자는 어둡고 깊고 들어가서 영영 나오고 싶지 않을 텐데…… 챙은 흐물흐물하고 쓰는 사람마다 전부 마음을 빼앗길 텐데…… 영문도 모른 채 만들어지는 미래의 모자들

시리야
네. (차분하게)

트루퍼 찾아줘
제가 찾은 영국 모스터튼의 산입니다. 여긴 어떠세요?

창밖의 세계는 캔처럼 찌그러지고 있다 중력을 모르는 비는 아래에서 위로 떠오르고 밤의 너그러움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깔리고 있다 깨어있는 채로 시계를 부수어도 시간은 있고 거기에 있고 그러나 볼 수는 없고 숫자는 인간을 안심시키고 통제 가능한 규칙을 만들고 너무 기분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슬픔에 가깝다

행인들은 저마다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다닌다 그림자를 줍듯이 밤은 바스락거리며 부풀어간다 모자를 찾는 장면은 열두시가 되자 어제의 일이 되고 사건은 알고리즘을 타고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부르지 않아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있고 업데이트가 152일 밀린 인간은 문득 자신의 이름이 트루퍼인 것을 깨달았다

네. (경쾌하게)

글 유건식 교수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방송을 보는 방법의 진화: 전파에서 OTT로

방송을 보는 방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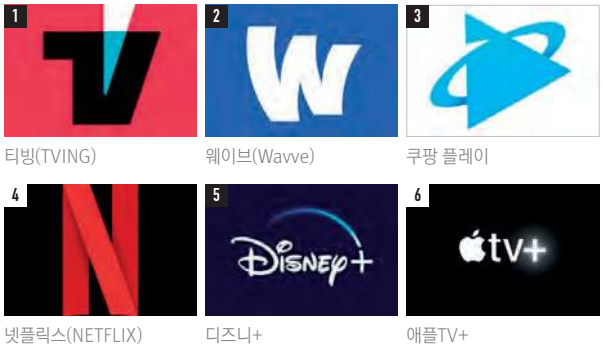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방송은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해 보는 방법뿐이었다. 안테나를 통한 방송 시청은 1995년 케이블TV, 2002년 위성방송, 2008년 IPTV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해방됐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 실시간 방송 시청을 목적으로 하며, TV 주위에 조그만 셋톱박스(Set-Top Box)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OTT의 출시로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시청할 수 있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양한 OTT 속 고민에 빠진 현대인

국내에 제공되는 OTT의 역사와 현황

대표 국내 OTT는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이며, 대표 글로벌 OTT는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다. 국내 OTT 중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시작한 것은 2010년에 출시된 티빙으로, JTBC와 제휴하고, KT의 '시즌(seezn)'을 병합했다. 2012년에 출시한 '푹(pooq)'은 2016년에 SKT의 '옥수수(Oksusu)'와 통합하면서 웨이브로 변경했다. 글로벌 OTT는 2016년 1월 넷플릭스에 이어, 2021년 11월 디즈니+가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HBO MAX'와 파라마운트의 '파라마운트+'는 각각 웨이브, 티빙과 제휴하여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용하는 대표 OTT(1, 2, 3 : 국내 OTT / 4, 5, 6 : 글로벌 OTT)



티빙(TVING) 웨이브(Wavve)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 애플TV+

2023년 1월 발표한 모바일 인덱스 조사에 의하면, 국내 OTT 활성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257만 명, 티빙 515만 명, 쿠팡 플레이 439만 명, 웨이브 401만 명, 디즈니+는 216만 명으로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웨이브나 티빙은 이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각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TT 시장의 변화

한동안 넷플릭스, 디즈니+ 등 구독 기반의 SVOD에는 광고가 없었다. 하지만, SVOD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은 OTT 구독에 큰 피로를 느끼고, 구독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해 1, 2분기에 유료 가입자가 약 1백만 명 감소했고, 디즈니+도 4분기에 비슷한 실적을 보였다.

TV 산업 조사기관 '디지털TV 리서치'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의 OTT의 성장치'에 관해 AVOD는 236.6% 증가한 906억 달러로 예상하지만, SVOD는 127.7% 증가한 20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OTT 기업으로서는 성장세와 시장 규모가 큰 AVOD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SVOD들이 광고를 포함하는 상품을 도입하며, HVOD로 변화하는 추세다.

또, 기존 방송과 유사하게 VOD 없이 실시간 방송과 광고로만 운용되는 'FAST(Free Ad-supproted Streaming TV) 서비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Pluto TV'와 'Tubi TV'가 대표적이며, 삼성과 LG도 각각 '삼성TV 플러스'와 'LG 채널스'를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OTT가 대세가 된 이유

OTT가 대세가 된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성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은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둘째, 가격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당 OTT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셋째, 사업성이 좋다.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사는 방송, DVD 판매보다 VOD(Video On Demand, 다시 보기) 등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이 수익이 더 높다.

OTT의 구분

구 분	AVOD (Advertising VOD)	SVOD (Subscription VOD)	TVOD (Transaction VOD)	HVOD (Hybrid VOD)
내 용	광고 기반 VOD, 광고를 보면 무료로 콘텐츠 시청	구독형 VOD, 월정액 형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콘텐츠 시청	건별 주문형 VOD, 콘텐츠 당 시청료를 지급	월정액, 단품 결제, 실시간 방송 시청 등이 혼합된 형태
대표 서비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IPTV에서의 VOD 구매	웨이브, 티빙

*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사용자가 시청을 요청하면 마음껏 볼 수 있는 서비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방송을 보는 방법이 전파에서 OTT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OTT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집에 들어와 거실의 TV만 켜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기존의 방식도 나름 관성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빨리 OTT로 전환될지는 방송과 OTT 중 누가 시청자의 마음을 더 사로잡느냐에 달려있다.

글쓴이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 리더스 포럼 위원, PD저널, KBS 사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넷플릭소노믹스』, 『오징어 게임과 콘텐츠 혁명』(공저), 『OTT 트렌드 2023』(공저) 등이 있다.

글 상병 김현호(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그림 강은정 작가

생각하는 그림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어느 지하철역 앞, 한 소녀가 배고픔에 지친 채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소녀의 앞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걸하는 소녀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보고서도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만이 동전을 던져주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다른 문구를 적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소녀에게 동전을 주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종이를 뒤집어 무슨 글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써 놓고 간 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꿈을 잃은 소녀에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구걸했지만, 문구의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행동을 끌어낸 것입니다. 또, 그들의 선행이 단순한 소녀의 배고픔 해결을 넘어, 소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더 큰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단어 선택과 억양, 어감 등을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녀가 적은 글은 소녀의 상황과 요청사항을 직접 드러낸 글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써준 글은 사람들이 타인의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살짝 바꿔준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관계나 업무에서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나요? 어쩌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관점에서 상대의 관점으로 바꾸고, 표현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점 바꾸기와 약간의 재구성으로 사람들 마음 속 깊이 존재하는 좋은 의도를 자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 상병 박준하(제20전투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 최종기회점검반)

공군인의 편지

훈련소 입소 1주년에 다가서며

상병 박준하

책을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동차 덕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겨하나, 구기 종목은 어려워한다.

지난 4월의 어느 봄날, 훈련소에 들어갔던 그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훈련소로 향하는 길엔 벚꽃이 한참 만개하여 참 보기 좋았지만, 입영을 코앞에 둔 전 마냥 즐기지 못했더랬죠. 걱정으로 입맛을 잃었지만 입소 전 마지막 식사를 하고, 훈련소로 들어갈 땐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훈련소에 들어가서는 미처 우울해할 새도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는 제식훈련, 밥을 먹으러 갈 때조차 빈틈없이 각 맞춰 걷기, 아침마다 우렁찬 구호와 함께 뜀걸음을 하는 매일이 마치 제가 새로운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총을 만져보고, 긴장해서 벌벌 떨면서 사격을 하고, 각개전투를 하느라 땅바닥에서 구르고, 유격 훈련을 받고는 기진맥진해서 드러눕고….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낯선 훈련 사이에서 정신없이 훈련을 받다 보니 어느새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시간이 길게 느껴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인가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지나가긴 하더군요.

내리쬐는 햇볕 아래 수료식을 치르고, 사회자가 "이제 가족분들은 연병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때 저는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가장 긴 시간이었던 5주, 마치 5년과도 같은 5주를 지나 부모님을 다시 뵙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저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숨기기 위해 애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맞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결국, 한참 동안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나서야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눈물을 보였다는 창피함도 잠시, 부모님과의 재회로 인해 반가운 마음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새 제 얼굴에는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 어느 때보다 값진 한 달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조금이나마 성장해 있는 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항상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역설적으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 돌아보면 짧을 거라고. 군 생활을 절반 가까이 한 지금에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책 읽는 공군

정예공군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소령 김대호

삶의 의미를 남기고자 글쓰기를 취미로 삼은 공군대학 작전학 교관.
태어난 지 300일 된 아들을 키우며, 책임을 다시 배우고 있다.

오랜만에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했던 동료를 만나 놀랐던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함께 탔던 비행기의 시동 절차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내 고향이 어디인지 동료에게 수차례 얘기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 동료의 이중적인 기억능력에 대해 『기억의 뇌과학』 저자 리사 제노바는 당연한 현상이라 설명한다.

기억은 부호화한 정보를 기반으로 뇌 신경 활동의 패턴화를 통해 저장한 결과이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왜곡되고, 변형되며, 망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쉽게 잊는 작업기억부터(동료가 전혀 관심 없는 내 고향을 들었을 때 짧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것처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근육기억까지(실수하면 안 되기에 철저하게 외운 항공기 시동 절차처럼) 각각 기억의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고 적절한 예시와 함께 친절히 설명한다.

『기억의 뇌과학』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 공군은 '기억'으로 싸운다고 말할 수 있다.

항공기 조종을 처음 배우는 조종사들은 익숙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기억'해야만 한다. 비행기 안으로는 수많은 계기와 실제 항공기 상태와의 연관성을, 비행기 밖으로는 관제사와 교신하는 방법과 주파수들,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임무 지역까지 다녀오는 동안 정해진 절차와 항법 장비들의 작동법을 기억하고 다뤄야만 한다. 동시에 학생 조종사들은 엔진의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이륙하면서 암기했던 기억들이 하늘처럼 새파랗게 증발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경험한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기억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 의자에 눈을 감고 앉아 비행상황을 실제처럼 상상하며 연습한다. 이것이 조종사들의 필수 덕목인 속칭 '머리비행'이다.

'머리비행'과 같은 노력이 어디 조종사뿐이겠는가. 모든 공군인은 자신들의 맡은 분야에서 신경세포를 곤두세우며 군사적인 기억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찾을 수 있도록 '머리단련'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빈틈없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교범 연구와 상황 연습을 지속하고, 수만 가지 부품과 정비 절차를 체득하기 위해 어두운 비행기 내부를 살피며, 변화무쌍한 공중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없이 시험하고, 새로운 무기와 첨단 기술을 적용할 바늘구멍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해 실험과 연구를 거듭한다. 하늘과 우주, 사이버와 전자기 영역으로 공군이 지켜야 할 영역이 늘어나고, 신체의 근육보다 두뇌 신경세포의 근육기억이 더 중요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결국 공군력은 모든 공군인의 '머리단련'을 통해 쌓은 기억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두뇌를 흔들어 깨워 망각의 늪을 헤치고, '기억'을 견고히 다지며, 영공을 방위하는 모든 공군인을 응원한다.

「기억의 뇌과학」
리사 제노바 지음 | 옹진지식하우스 펴냄

글 정영욱 작가

토닥토닥

삶의 작대기

나도 한 사람의 보라매였다.
스무 살의 나는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인근 공장에 취직했다. 그게 나의 인생에선 당연한 순서인 줄 알았다. 첫 직장에서의 야박한 대우를 몸소 느끼며, 이 사회는 나 같은 이가 서기에는 빠듯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유대와 소속감이 필요했다. 그렇게 2011년, 공군 병사로의 입대를 선택했다. 선택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도망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수료식 날, 마치 군 생활이 다 끝난 듯 좋아했던 동기들과 나는 이병이라는 얇은 선 하나로 자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군의 규율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름 안락했다. 적응을 잘 못 하는 어리고 여린 나를 감싸주는 주임 원사님과 동기라는 울타리 그리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수, 군번 차이가 꽤 나는 통칭 '아빠' 군번의 선임까지. 모든 이들이 이전의 나를 잊게 해 주듯, 사회에서 나를 보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날 바라봤다. 내 계급장의 선은 어느덧 겹겹이 쌓여갔고, 나는 그만한 책임과 나름의 위신을 얻으며 군 생활을 영위해갔다. 사회로부터 도망만 치던 나는 사라지고, 어느덧 나는 어엿이 제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군대에는 자유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내겐 군대라는 울타리는 세상보다 넓고 자유로우며, 그 자유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따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심 '이곳에서 계속 산다면 어떨까?'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병장에서 선이 하나 더 그어진 다섯 겹의 계급을 달고 전역해 계급장에 하나둘 선이 늘어왔다는 상상을 해본다. 지금의 나는 15겹 정도의 작대기를 달고 있으려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해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대우가 있고,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

작대기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급장을 바꿔 달며 웃던 그 때를 떠올려본다. 주름이란 세월의 훈장이 늘어날 때마다 기분 좋게 웃으며 성장했노라, 자랑스러울 순 없는 것일까. 전역을 바라보던 그때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매해 달력을 넘기며 내 기준 어른이란 종착점은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 예전에는 이십 대 중반만 봐도 어른인가 싶었는데…. 이젠 오십은 돼야 어른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마음속의 고향인 서산기지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잘 쓰지도 않는 일기장에 적어놓는다. "그때 알지 못해서 참 다행이다." 겹겹이 쌓일수록 즐겁지 않은 것이 있음을. "그곳에서 알지 못했기에 다행이다." 젊음과 즐거움과 사랑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랐을 때 가장 빛나는 것임을.

정영욱 작가

부크럼 출판사 대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 등을 출간했다.

마음의 소리

고은이
koe11**@naver.com

표지에 '하늘이 프렌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네요! 너무나도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2월을 맞아 기쁩니다. 2월호에서는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 읽는 공군〉 코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많았기에,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따금 삶의 이정표로서 적용된다.' 라는 부분도 공감됐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을 담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애정을 갖고 구독하겠습니다♡

AF

공군 대표 캐릭터 '하늘이 프렌즈'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월간 『공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예짐
ui2**@naver.com

안녕하세요. 공군 부사관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번 모집에서 탈락해서 낙심하고,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공군』을 통해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병들을 보며, 아직 포기하긴 이르고, 반드시 합격해서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귀한 정보들을 월간 『공군』에 실어주심과 제 원동력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소식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AF

독자님의 공군 부사관에 관한 열망과 포부가 느껴집니다. 언젠가 월간 『공군』에서 영공방위에 앞장서는 모습을 취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봅니다. 공군 부사관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장우익
wikja**@naver.com

책 읽기 좋은 공군의 독서생태계 조성과 독서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군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함께한 따뜻한 글귀 '토닥토닥'도 좋았습니다. 전문강사로부터 독서법을 배우고 토론하는 모습이 '좋은 공군'을 만드는 지름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독서 소외 장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인이 추천하는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AF

더 좋은 공군이 되기 위해 독서생태계 조성과 독서복지 실현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책 읽는 공군〉 코너의 장병 참여도도 높답니다. 앞으로도 공군인이 추천하는 좋은 책들을 기대해주세요!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y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537

SPACE CHALLENGE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과학축제

ISSN 2383-5524
03 >
9 772383 552001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